해남군, 2012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

'2012-100' 프로젝트 가동

읍·면별 기업사랑회 구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해남군이 오는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2012-10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기업하기 좋은 해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해남군은 오는 2012년까지 기업유치 정책 강화와 규제 완화,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중점 추진 전략산업으로 조선기자재와 농수산물 유통가공, 관광레저, 실버의료 분야를 선택하고,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투자가 실현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 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친기업 정서 확산을 위해 14개 읍·면별로 133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기업 사랑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업사랑 해남군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1읍·면 1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매년 투자유치 우수 읍·면 2곳을 선정해 각각 1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투자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정보의 확보인 만큼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대한조선 등 대형 기업의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05년 대한조선 유치를 시작으로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기업 8곳을 유치해 모두 1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명량대첩축제' 4일간의 대장정 막 내려

차별화 성공…전남 대표 '명품 축제' 자리매김

관광객 31만 명 다녀가…울돌목 해전 완벽한 재현 '감탄'

411년 전 울돌목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무찔렀던 대승리를 재현한 '명량대첩축제'가 14일 31만명의 관광객 몰이를 하며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진도대교를 무대 삼아 열린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울돌목의 역사적인 현장을 최대한 활용해 볼거리와 재미를 부각시키는 한편 래프팅, 요트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적지임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10여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무공 관련 축제를 우후죽순 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는 타 축제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꼽혔다.

축제의 으뜸은 단연 역사현장을 그대로 활용한 해전의 재현이었다.

거센 물살 때문에 물 흐름이 거의 정지된 약 1시간의 물때를 이용해 울돌목 바다에서 펼쳐진 해전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그러나 해남과 진도가 공동으로 진행해오던 축제를 전남도가 처음으로 확대 개최하면서 준비기간이 짧아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미흡했던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내년에는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관광객이 하루라도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도 23호선 선형 변경 시급

장흥군, 장흥대교~탐진강변~장흥교앞으로 변경 건의

장흥지역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국도 23호선이 국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선형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은 장흥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3호선 구간중 장흥대교~군민회관~중앙로~군청 4거리~장흥교앞1.4㎞를 장흥대교~탐진강변도로~장흥교앞(0.8㎞)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서를 익산 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800여m에 이르는 장흥지역 중심 상가인 중앙로 구간은 폭 10m에 편도 2차선 도로로 일반 버스나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아 국도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장흥군은 국도인 중앙로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되면 전주 지중화를 비롯해 각종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해 전형적인 상가로 꾸밀 계획이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측이 그동안 새로운 시가지 조성이나 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환경 요인외에는 국도 선형변경을 자제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중앙로 상가번영회는 지난 5월부터 상가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중앙로 러브데이날' 행사를 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성 영어 경시대회

지난 11일 장성 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 1회 장성군 영어경시대회 2차 구술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원어민 면접관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

2차 구술시험에는 초·중·고교생 90명이 응시했으며, 장성군은 1차 지필시험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우수 학생에게는 해외여행의 특전이 제공된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순천에 '지리산 순한한우 명품관' 개장

동부권 7개 시·군 축협 합동 직판장 운영

유통 마진 거품 빼 질 좋고 값싼 한우 제공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축협(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여수, 장흥)이 합동으로 육성한 지리산순한한우를 맛볼 수 있는 명품관이 16일 개장한다.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885-1번지에 들어서는 지리산순한한우 명품관은 연건평 1천320㎡에 쇠고기 직영판매장과 정육식당을 갖추고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신선하고 우수한 명품 한우를 유통마진의 거품이 빠진 가격에 판매한다.

지리산순한한우 명품관에서는 등심 1등급 600g을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최상급인 1등급 ++는 4만2천원, 1등급 +는 3만4천원이다. 고기를 사들고 160석을 갖춘 식당에 들어가 1인당 2천원을 내면 각종 반찬과 야채 등이 제공된다.

지리산순한한우의 생산기반은 1만9천530여개 농가에서 사육중인 번식우 7만4천여마리와 비육우 3만1천여마리 등 11만여마리에 달한다. 비육우 사육마리수와 비교해 번식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송아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 브랜드 축산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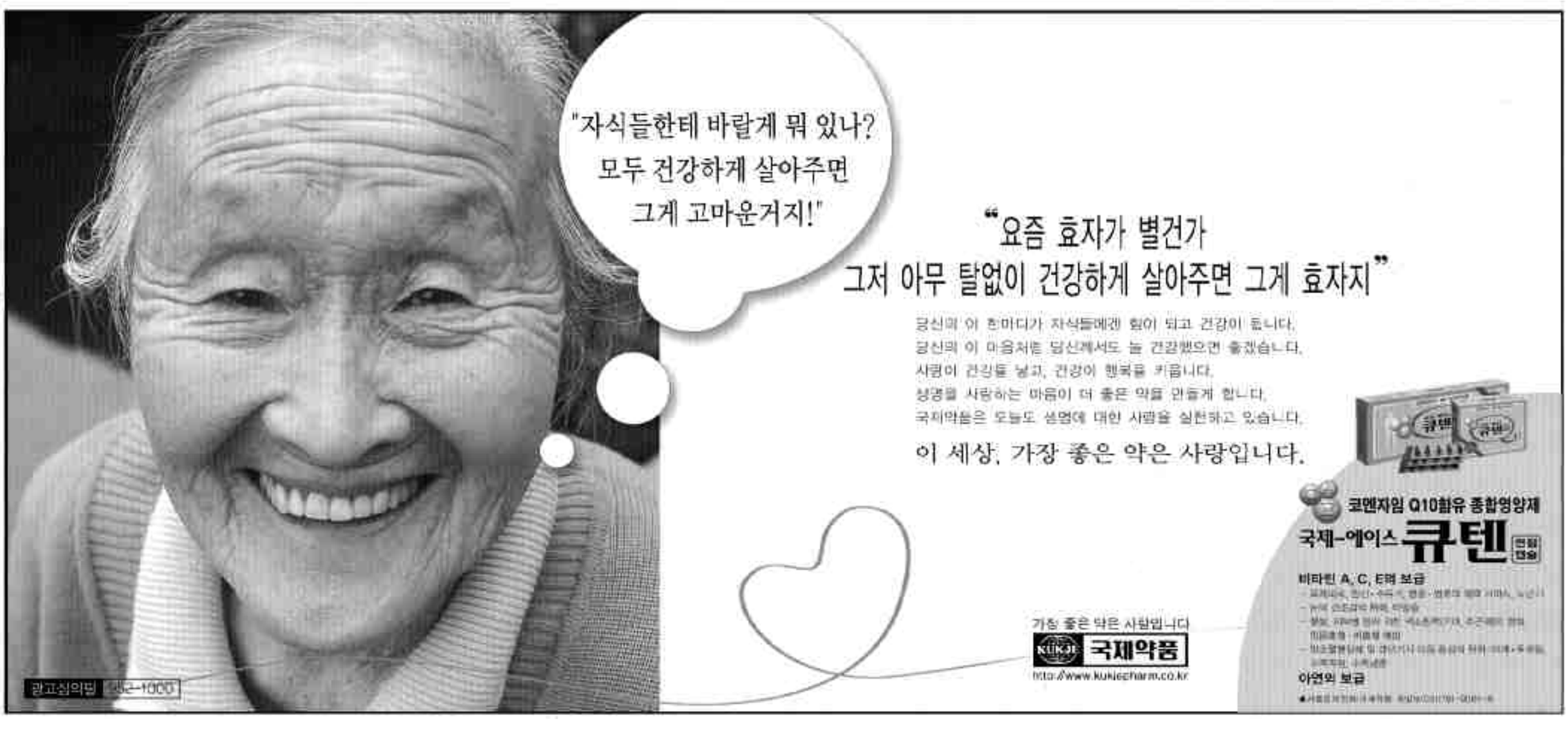
또 이전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 온 고흥축협의 유자골 한우, 광양축협의 매실한우, 보성지역 녹우, 장흥 표고한우 등의 브랜드 기반을 발판으로 출범, 고품격 한우 생산과 유통이 손쉬운 점도 장점이다.

7개 축협 564개 농가가 참여한 지리산순한한우 작목반은 2만5천여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들은 거세한우 30개월령 700㎏ 이상 1B라는 등급 기준을 맞춰야 출하가 가능하다.

게다가 순한한우는 지난 2004년 7개 시·군 지자체와 순천대학교, 브랜드 사업단으로 구성된 산·학·관 협력위원회를 결성해 행정, 학계, 사업 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순한한우 브랜드 사업단은 일반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혈통, 사양, 육질을 모토로 한 '3통(統)' 과 '3고(高)' 를 지향하고 있다. '3고' 는 항생·항균·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3무(無)와 도축과 가공시 HACCP 도축장 이용, 유통 전 과정의 콜드체인시스템을 실현하고 1등급육을 80%이상으로 맞추며 품질인증, 생산이력제, 생산자 실명제 구축을 의미한다.

전남 동부권 7개 축협이 육성한 지리산 순한한우 직매장이 16일 순천시 별량면에 문을 연다.〈사진 위〉 지리산 순한한우는 일반 쇠고기와 차별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2008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리산순한한우는 최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2008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한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3년 연속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리산순한한우 천창환 사업단장은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수브랜드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자체매장을 열게 됐다" 며 "롯데마트의 대표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지리산순한한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팀=지광현기자 light64@